



체중 측정은 입추할 때부터 시작하여 산란율 5%에 도달할 때까지 매주 측정하는 것이 좋으나 많은 계군을 사육할 경우에는 2~4주 간격으로 실시합니다. 특히, 어린병아리 사료 → 중병아리 사료 → 큰병아리 사료의 교체 시기에는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. 동일한 계군의 체중 측정은 같은 날, 같은 시간에 실시하는 것이 좋으며, 측정 시 측정 시간을 고정시켜야 하는데 사료나 물을 섭취한 후 4~6시간 지난 후나, 늦은 오후 혹은 새벽에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. 특히 제한 급이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료를 급여하지 않는 날 체중을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 측정 시 대상 마릿수는 전체 계군의 10% 정도 하는데 평사의 경우에 무작위로 추출하여 개체별로 측정하여 평균체중을 산출합니다.

케이지에서는 샘플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는데 조별 열별 상하단을 앞부분에서 $\frac{1}{3}$, 중간에서 $\frac{1}{3}$, 뒷부분에서 $\frac{1}{3}$ 씩 고루 측정하며 케이지칸에 1수가 도태 또는 폐사하여 마릿수가 다른 칸은 조사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합니다. 측정 시에는 압사 사고나 날개 또는 다리의 골절상을 입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, 초기 성장에 문제가 발생했던 계군은 더 자주 측정하여 주령에 맞는 목표체중과 비교해 판단해야 합니다.